

한국 내 왜구 연구의 학술사적 검토

金 普 漢

<p>I. 연구의 목적 및 배경</p> <p>II. 한국에서 왜구 연구의 성과와 동향</p> <p>1. 1950~1980년대의 연구 동향</p> <p>2. 1990년대의 연구 동향</p> <p>3. 2000년대의 연구 동향</p>	<p>III. 연구 성과의 주제별 분석</p> <p>1. 왜구 근거지의 문제</p> <p>2. 왜구 발생과 창궐, 그리고 소멸의 원인</p> <p>3. 왜구 주체의 문제</p> <p>IV. 왜구 연구의 문제와 전망</p>
--	---

I.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지금도 종종 세계 뉴스에서는 국제 해양질서에서 이탈한 해적의 활동을 방송하곤 한다. 이를테면, 약탈·인신납치·석방협상 등과 같이 아득한 과거에나 있을 법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과거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적이 성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명사》 등에는 왜인의 약탈행위를 ‘왜구’라고 부르고,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동아시아 해역은 한·중·일의 문화교류와 물자유통의 매우 중요한 연결 통로였다. 또 서해, 동해, 동중국해 등지에서 시기별로 국가 간에 소통과 단절, 충돌과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교통로이기도 하였다. 즉 13세기 이후 왜구가 출현하였을 때 고려인·조선인에게는 왜인에 대한 警戒의 공간이었으며, 몽골 팽창의 국제질서 재편에서는 충돌의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를테면 교류와 소통의 순기능과 경계와 충돌의 역기능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는 해역이었다.

14세기는 정치사회적으로 동아시아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이다. 특히 14세기 중반 이후 불과 반세기 만에 고려에 왜구가 약 500여회(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출

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말 선초의 한일관계에서 핵심 연구테마로 왜구가 주목된다. 동아시아 세계가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아 가는 시기였지만, 왜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에서는 왜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한·일 왜구 연구자 사이에는 왜구 발생원인과 주체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일본연구자는 왜구의 발생 원인이 고려의 정치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왜구의 주체를 고려인·조선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왜구 발생의 원인이 일본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일본 내의 정치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왜구의 주체가 일본인이므로 일본사에서 왜구 발생의 원인과 왜구 소멸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왜구의 발생 원인과 주체에 관한 연구사를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2년 《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¹⁾에서 왜구 연구의 학술적 성과가 정리되었지만, 이후에도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왜구 연구사의 재정리를 통해서 양국 학자의 견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 시각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학술사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내 왜구 연구사를 정리하고 소개함으로써 일본 중심의 학문적 독선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학술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배경이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등장하는 작금의 시대상황에 맞추어, 상호 공존과 우호 증진의 지표가 재설정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기도 하다.

Ⅱ. 한국에서 왜구 연구의 성과와 동향

1. 1950~1980년대의 연구 동향

현재 14~5세기 한일 간 학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14~5세기 왜구사와 관련하여 한국 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고려와 조선에 출현하는 왜구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

1) 韓文鍾, 2002 <조선전기의 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研究의 回顧와 展望》(국학자료원, 서울)

었다. 시기별로 보면 1950년대에 3편,²⁾ 1960년대에 1편,³⁾ 1970년대에 4편,⁴⁾ 1980년대에 6편⁵⁾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외에 저서로는 1970년대 《한국사》와 1980년대 《신편 고려시대사》가 있는데, 통시적으로 고려시대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왜구 연구가 총정리되었다.⁶⁾

왜구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 국내 사료를 이용한 연구가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 내에서 일본사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일본 사료의 접근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 유학 연구자들이 대거 귀국하였고 자유로운 왕래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먼저 1950년대 연구에서는 처음 신기석이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동사강목》 등의 사료를 인용하여, 왜구가 출현하는 고려시대 전시기의 왜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고려시대 왜구가 출현하는 이유와 왜구의 근거지를 열거 하면서, 고려정부의 왜구 대책으로써 군사적인 방어책과 禁寇의 외교 사절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의 왜구 논문으로는 폭넓게 왜구 문제를 다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申基碩, 1957).

마찬가지로 신석호는 고려 말 왜구의 발흥을 열거하면서 그 원인을 일본의 내란과 고

-
- 2) 申基碩, 1957 <高麗末期의 對日關係 - 麗末倭寇에 관한 研究> 《社會科學》 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李鉉淙, 1959 <朝鮮初期倭人接待考(上·中·下)> 《史學研究》 3·4·5 (한국사학회); 申奭鏞, 1959 <여말선초의 왜구와 그 대책> 《國史上的 諸問題》 3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 3) 宋正炫, 1966 <莞島와 倭寇 - 李朝時代를 中心으로> 《호남문화연구》 4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 4) 李銀圭, 1974 <15世紀初 韓日交涉史 研究 - 對馬島征伐를 中心으로> 《湖西史學》 3 (호서사학회); 孫弘烈, 1975 <高麗末期의 倭寇> 《사학지》 9 (단국사학회); 孫弘烈, 1977 <麗末·鮮初의 對馬島征伐> 《湖西史學》 6; 李鉉淙, 1977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 《동양학7(부록: 제6회 동양학 학술회의록(197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5) 韓容根, 1980 <高麗 末 倭寇에 관한 小考> 《慶熙史學》 6·7·8 (경희대 사학회); 羅鐘宇, 1980 <高麗 末期의 麗·日 關係 - 倭寇를 中心으로> 《전북사학》 4 (전북사학회); 李鉉淙, 1981 <高麗·朝鮮時代 韓日關係의 展開> 《일본학》 1 《부록2: 제2회 일본학 학술회의 발표요지》 (단국대 일본학연구소); 張學根, 1983 <朝鮮의 對馬島 征伐과 그 支配政策 - 對外關係를 中心으로> 《논문집》 8 (해군사관학교); 李鉉淙, 1984 <朝鮮前期의 日本關係> 《동양학4(부록: 제13회 동양학 학술회의록(198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車勇杰, 1984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鎮戍와 築城> 《史學研究》 38(한국사학회)
- 6) 李鉉淙, 1973 <왜인관계> 《조선: 양반관료국가의 성립(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李鉉淙, 1974 <왜구> 《고려: 고려후기의 사회와 문화(한국사8)》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金庠基, 1985 <倭寇의 禍>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려 국방력의 약화로 파악하였다. 여말선초의 수군 정비와 화포의 제조 등을 포함하여 조선 초기의 對倭 정책에서 대마도 중심의 회유책(조공무역)과 강경책(대마도 정벌)을 중심으로 왜구 문제를 고찰하였다(申奭鎬, 1959). 그리고 이현중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 횡수와 침입 지역을 도표로 작성하고, 조선 초기 왜구의 활동에 따른 조선의 유화책과 그 반작용으로서 조선의 폐해와 대책을 삼포왜란(1510) 이전까지 체계적으로 언급하였다(李鉉淙, 1959).

1960년대의 왜구 연구로는 송정현의 논문 한편 만이 발표되었다. 그는 조선시대를 통시대적으로 열거하며 현지조사를 통해서 완도지역에 출현한 왜구의 활동과 방비책을 중심으로 왜구 연구를 시도하였다(宋正炫, 1966).

왜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기존 왜구의 연구 성과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사》 8·9에서 이현중에 의해서 정리되었다. 그는 왜구의 발생 원인을 고려와 일본의 국내적 원인으로 각각 나누어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고려의 국내적 요인은 공민왕의 반원정책 추진과 개혁정책의 실패, 그리고 친원·친명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田土의 황폐화, 그리고 이로 인한 국력과 국방력의 약화를 들었다. 일본 국내의 요인으로 남북조 내란기의 혼란한 사회적 불안과 산적·해적의 등장 등을 지적하고, 고려로부터의 대일교역이 단절됨으로 인한 교역에 종사하던 왜인들까지 왜구로 변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왜구가 ‘강도적 무력집단’, 혹은 ‘교역 왜인’이었다고 규정하고, 왜구의 목적이 지방호족의 경제적 이익추구와 邊民의 곡물과 생활필수품 확보에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금구 대책에서 피로인의 송환을 처음으로 도표화하는 한편 왜구의 피해를 정치·사회·경제·문화 분야로 자세하게 나누어 분석하고, 더 나아가 조선 초기의 왜인 대책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발표하였다(李鉉淙, 1973 : 1974).

이어서 손홍열은 한국 내에서 왜구 연구가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왜구 발생을 일본 국내의 사정과 고려 국내의 사정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이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왜구의 근거지로 대마도·이끼도·마쓰우라(松浦)지방을 제시하였다. 또 왜구의 활동을 몽골의 일본 원정 이전(고종·원종 시기), 초기의 왜구(1350년 이전), 창궐기의 왜구(1350년 이후)로 세분하여 서술하였다. 또 왜구의 소탕과 관련하여 왜구 3대첩(홍산·황산·남해대첩)을 언급하였는데, 고려의 왜구 방어대책을 육상 방어와 수군의 대마도 정벌, 그리고 외교사절의 파견으로 구분하여 언급하였다(孫弘烈, 1975).

1980년대 나중우는 왜구의 침입 횡수를 새롭게 정리한 도표로 제시하고, 왜구 출현

시기와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왜구 연구를 더욱 체계화하였다. 이를테면 고려 왜구의 침입을 창궐기 이전(1350년 이전)과 이후(1350~92)로 구분하고, 다시 창궐기 이후를 세 시기(초기 : 1350~73, 중기 : 1374~83, 후기 : 1384~92)로 세분화하였다. 고려의 왜구 대책으로는 군사체제의 강화, 토벌, 회유책, 사절의 파견으로 구분하여 언급하였다. 결론에서는 여·일관계가 왜구로 인하여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변태적인 대외관계로 전환되었고, 고려왕조가 해결하지 못한 금구 문제가 조선왕조로 이어져서 공무역의 전개에 따라 왜구가 종식되었다고 주장하였다(羅鐘宇, 1980).

그러나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왜구 연구는 왜구 발생의 원인과 관련해서 일본 국내의 정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분석 없이, 오히려 고려 국내의 상황을 왜구의 침구 목적, 왜구의 성격규명, 왜구 침입의 시기 구분, 왜구침입에 대한 방비책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중세사 연구자가 한국에서 전무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2. 1990년대의 연구 동향

1990년대에 들어와 왜구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시도되었다. 전 연대와 비교하여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1990년대에 15편이 발표되었고,⁷⁾ 《신편 한

7) 崔韶子, 1992 <元末 倭寇와 元·日關係> 《이대사원》 26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丁仲煥, 1992 <왜구에 대한 일고찰 -고대 및 고려후기의 왜구를 중심으로> 《港都釜山》 9 (부산시사편찬위원회); 李慶喜, 1993 <高麗末 倭寇의 침입과 對倭政策의 一端面> 《부산여대사학》 10·11 (부산여대사학); 羅鐘宇, 1994 <朝鮮前期 韓·日關係의 性格研究> 《동양학》 2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盧啓鉉, 1995 <朴茂·金士衡의 對馬島 征伐> 《사대논문집》 30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南基鶴, 1996 <몽고침입과 중세 일본의 대외관계> 《아세아문화》 12 (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 張得振, 1996 <高麗末 倭寇侵掠期 ‘民’의 동향> 《국사관논총》 71 (국사편찬위원회); 韓文鍾, 1997 <朝鮮初期의 倭寇對策과 對馬島征伐> 《전북사학》 19·20 (전북사학회); 朴漢男, 1997 <恭愍王代 倭寇侵入과 高玄寶의 ‘上恭愍王疏’> 《국사》 34 (국방군사연구소); 金琪燮, 1997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9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李領, 1996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 ‘高麗·日本人聯合’論 또는 ‘高麗·朝鮮人主體’論의 비판적 검토 -> 《한일관계사연구》 5 (한일관계사연구회); 李領, 1997 <‘倭寇의 空白期’에 관한 한 考察> 《일본역사연구》 5 (일본사학회); 李領, 1999 <일본인이 보는 왜구의 정체 - ‘경인 이후 왜구’와 일본 국내정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46 (역사문제연구소); 尹誠翊, 1999 <元代 倭寇에 대한 考察> 《동양학연구》 15 (동양학연구학회); 金普漢, 1999 <一揆와 倭寇 - ‘下松浦一揆’의 성립과 관련해서> 《일본역사연구》 10 (일본사학회)

국사》는 대외관계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왜구를 다루었으며,⁸⁾ 왜구 전문 연구서로서 단행본도 출판되기에 이른다.⁹⁾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일본에서 유학한 한국연구자들의 입국으로 새로운 경향의 연구가 추가되면서 왜구 연구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로 기존의 연구와 동일선상에서 한국사적 관점의 연구와 계속되었고, 둘째로는 한일관계사의 연구시각에서 왜구 연구가 정리되어 갔으며, 셋째로 일본사적 시각에서 왜구의 실체를 입증하려는 연구가 소개되어 왜구 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일본사 중심의 연구 시각이 등장하는 것은 1990년대 연구의 신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최소자는 元 말에 일본 국내의 혼란을 이용하여 고려뿐만이 아니라, 중국 연안에서 왜구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崔韶子, 1992). 반면에 윤성익은 元代의 왜구를 단순한 일본 해적으로 규정하기보다 明代의 왜구와 같이 동아시아 해상교류에서 나타난 교류의 한 형태로 파악하였다(尹誠翊, 1999).

한편 한국사의 관점에서 장득진은 고려 말 왜구의 침략기에 ‘民’의 동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왜구의 침략에 따른 군제의 변화에서 오는 민의 부담 가중과 민심의 이반, 假倭와 附倭層의 대두와 발생을 고려정부에 대한 반항으로 결론 짓고 있다. 왜구에게 포로가 된 후에 왜구의 앞잡이가 되는 자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고려의 모든 민이 대동단결하여 왜적의 침입에 저항하였다는 통념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張得振, 1996). 기존연구와 다른 새로운 연구 시각이지만, 왜구를 고려인의 이반으로 주장하는 일부 일본학자의 견해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비취질까 걱정되는 견해이다.

이외에도 박한남은 禹玄寶가 공민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영향으로 수군재건이 시도되었고, 그 효과로써 진포대첩과 남해대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朴漢男, 1997). 또 노계현은 고려와 조선의 왜구근절 소탕정책으로 박위와 김사형의 대마도 정벌을 소략하게 언급하였다(盧啓鉉, 1995).

한일관계사의 시각에서 한문종은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왜구 발생 요인과 침구 목적, 고려의 왜구 대책으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조선 초기의 왜구 침입 건수와 통교 건수를 도표로 대비하며 왜구가 평화로운 통교자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체계적

8) 羅鐘宇, 1994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河宇鳳, 1995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羅鐘宇, 1996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원광대학교 출판국, 전주); 羅鐘宇 외, 1998 《한국과 일본, 왜국과 콤플렉스의 역사》 1 (자작나무, 서울)

9) 국방군사연구소편, 1993 《倭寇討伐史》 (국방군사연구소, 서울)

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韓文鍾, 1997).

일본사의 시작에서 이영은 왜구 집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일본학자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의 견해인 왜구=고려·조선인 연합·주체설을 통렬히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다나카가 근거로 제시한 李順蒙의 상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려 말 유민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것에 불과한 상서였다고 비판하였다. 또 경인년(1350) 이후의 왜구의 창궐 배경은 남조의 정서장군부가 규슈와 세토(瀬戸)내해 지역의 악당을 남조 측의 군사력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침구의 목적은 쇼니 요리히사(少貳頼尙)가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고려에 침입해 왔다고 설명하였다(李領, 1996 ; 1999). 또 그는 ‘13세기 왜구’와 ‘경인년(1350) 이후부터 1392년까지의 왜구’를 비교하여, 여몽연합군의 침공 이후에 14세기 중엽까지 왜구가 극소수 밖에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고려와의 군사적 긴장감과 호조씨(北條氏)의 得宗專制 정권의 海上警告策 시행에 있고, 근본적으로는 대마도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쇼니씨(少貳氏)와 소씨(宗氏)가 왜구의 발생, 급압, 발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왜구사에 있어서 대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李領, 1997).

왜구의 실체를 입증하려는 연구는 남기학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그는 1323년과 1350년 이후의 왜구에 대해서 몽골 침입 이후에 고려와의 외교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를 주관하던 다자이후(大宰府) 무토씨(武藤氏)의 세력 약화로 왜구의 통제가 이완되었고, 가마쿠라 막부 말기에 악당과 해적의 횡행, 고다이고(後醍醐)천황의 親政 이래의 정치적 동요와 국내의 사회정치적 모순의 심화가 작용하여 고려에 왜구가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南基鶴, 1996). 이영과 남기학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본사적 입장에서 왜구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한국에서 왜구 연구에 새로운 연구 시각을 소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김보한으로 이어져 남북조 내란기 규슈 마쓰우라(松浦) 지역 무사들의 정치적 동향에 주목하였다. 아시카가 다다후유(足利直冬)가 규슈에 내려오면서 무사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것이 고려의 ‘경인년 왜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觀應擾亂의 혼란기에 마쓰우라(松浦) 일족은 혼란기의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의 성립을 갈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율성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서 ‘시모마쓰우라 잇키 계약장(下松浦 一揆 契約狀)’이라고 파악하였다. 특히 잇키(一揆)는 자치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야토(夜討)·海賊의 금지 조항을 삽입하여, 이웃한 고려에 왜구 출몰을 자제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왜구

의 소멸은 왜구들의 근거지이며 활동의 무대였던 일본 내 재지의 안정과 해당 지역 住人들의 자치 능력의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金普漢, 1999).

이외에 나중우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0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왜구사를 정리하고(羅鐘宇, 1994), 조선 전기까지 한일관계와 對왜구정책을 정리한 연구서를 출판하였다(羅鐘宇, 1996). 또 장득진과 함께 현재까지의 왜구 연구 성과를 읽기 쉬운 내용으로 일반 독자에게 소개하였다. 왜구 활동의 본래 목적과 구성원의 주체, 대마도 정벌의 정당성과 일본 해적집단의 실체를 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羅鐘宇 외, 1998).

이상에서 1990년대 연구에서는 일본학자의 연구를 비판하고 왜구의 발생 배경을 일본 국내의 정세와 관련지어 분석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신경향은 일본의 연구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필적할 만한 대응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연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3. 2000년대의 연구 동향

1990년대의 연구에서 일본학자의 견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에는 한국에서 왜구 연구의 새로운 틀을 설립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전 연대와 비교해 보아도 훨씬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되어서, 2007년까지 이미 16편 이상이 발표되었고,¹⁰⁾ 왜구 전문 연구서가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¹¹⁾ 또 학술사

10) 韓文鍾, 2000 <조선전기 對馬 早田氏의 對朝鮮通交> 《한일관계사연구》12 (한일관계사학회); 韓文鍾, 2005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 위반자의 처리>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 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 4)》 (경인문화사, 서울); 이재범, 2003 <고려 후기 왜구의 성격에 대하여> 《사림(성대사림)》 19 (수선사학회); 鄭恩雨, 2005 <高麗後期 普明寺 金銅菩薩坐像과 倭寇와의 관계> 《미술사학》 19 (한국미술사교육학회); 李頴, 2003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 '경인년 이후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3 (한국사연구회); 李頴, 2000 <'庚寅年 왜구'와 일본의 정세>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李頴, 2004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李頴, 2005 <왜구의 주체>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 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4)》 (경인문화사, 서울); 李頴, 2006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松浦黨 - 우왕3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4 (일본사학회); 南基鶴, 2003 <중세 고려, 일본 관계의 쟁점 - 몽골의 일본 침략과 왜구> 《일본역사연구》 17 (일본사학회); 金普漢, 2001 <海洋文化와 倭寇의 소멸 - 五島列島 공동어업권과 관련해서> 《문화사학》 16 (한국문화사학회); 金普漢, 2001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 少貳冬資의 피살과 관련해서> 《일본역사연구》 13 (일본사학회); 金普漢, 2004 <東아시아의 經濟 圏域에 있어서 약탈의 주역, 海

적으로 한국사에서의 왜구를 벗어나 한일관계사에서의 왜구와 일본사에서의 해적·왜구로의 접근 시도가 돋보이는 시기이다.

먼저 한국사의 연구 시각에서 이재범은 고려 후기 왜구의 존재형태를 언급하며 ‘몽골의 일본 원정 이전 왜구’, ‘몽골의 일본 원정 이후 왜구’, ‘경인년 이후 왜구’로 구분하고, 왜구 소멸과정까지의 전개를 재정리하였다(이재범, 2003). 정은우는 사가(佐賀)현립 박물관의 후묘지(普明寺) 금동보살좌상 외에 14세기 왜구가 고려에서 약탈해 간 일본 내의 30여 구의 약탈품을 소개하고 왜구가 문화재 약탈도 병행하였음을 상기시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鄭恩雨, 1995).

한일관계사의 시각에서 조선 초기 왜구의 소멸에 관한 한문종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는 고려 말과 조선 초 왜구의 우두머리이며 수직왜인이기도 한 쓰시마(對馬) 하야다씨(早田氏)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왜구로부터 시작하여 통교자, 수직왜인, 삼포 항거왜인으로 변신하여 조선과의 통교관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는 왜구가 조선과의 통교자로 전환하여 정착한 이후에 조선과 통교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 사례를 들어가며 고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韓文鍾, 2000). 또 그는 조선 초기 왜구 대책과 외교적인 교섭의 결과로 왜구가 점차 감소하여 使送倭人, 興利倭人, 投化倭人 등의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되어 간다고 분석하였다. 반면에 1409년 이후에 왜구의 침입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일본 각지에서 도항하는 왜인이 점차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마도를 통한 간접 통제 방식과 문인제도가 도항 위반자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韓文鍾, 2005).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왜구 금지를 위해서 등장하는 유화책에 대해서 그 한계와 효용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결국 조선은 고려의 약탈물에 버금가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조건에서 왜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영은 마산지역에 출몰하는 왜구의 침구 횡수, 집단 숫자의 분석을 통해서, 마산이 왜구의 본거지이며 집결지도 되고, 통과지로도 기능하였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마산은 왜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사거점이었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賊과 倭寇 - 10~13세기 일본의 海賊과 倭寇를 중심으로 - > 《중국사연구》 29 (중국사학회) ; 金普漢, 2005 <중세 여·일 관계와 왜구의 발생원인>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 관계(한일관계사 연구논집 4)》 (경인문화사, 서울) ; 金普漢, 2006 <東아시아 海域의 아웃로(Outlaw)> 《일본역사연구》 24 (일본사학회) ; 具山祐, 2007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 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 11) 한일관계사 연구논집 편찬위원회, 2005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 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 4)》 (경인문화사, 서울) ; 李鎭, 2007 《잊혀진 전쟁 왜구 - 그 역사 현장을 찾아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서울)

는 결론을 내고 있다(李領, 2004). 또 그는 4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왜구를 ‘13세기 왜구’, ‘경인년 이후의 왜구’, ‘조선시대의 왜구’로 구분하고, 가장 심각했던 경인년 왜구가 일본학자의 주장처럼 남북조 내란기의 혼란을 틈 탄 일본 서부지역 백성들의 약탈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오히려 쇼니씨(少貳氏) 휘하 규슈의 남조 세력이 경인년 왜구의 정체라고 재차 주장하였다(李領, 2003). 경인년 왜구의 실체에 대해서 대마도와 이키도 등 규슈 서쪽에서 항거하는 규슈의 난신들이 병량의 확보를 위해서 고려에 침입한 것으로 보았다. 또 마쓰우라(松浦) 지역 사람들이 남조의 군세와 더불어 고려에 침구해 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하였다(李領, 2006).

이와 관련하여 남기학은 다소 다른 견해를 전개하였다. 그는 왜구의 민족 구성과 왜구집단의 성격을 언급하며, 고려 말의 왜구는 남북조 동난이라는 일본 국내의 혼란을 틈 탄 규슈·시코쿠 등의 서국지방의 ‘완민’·‘적도’, 즉 ‘약당’·‘해적’의 약탈행위로 규정하였다. 또 왜구의 목적이 병량미의 조달이나 일시적인 피난처의 확보라는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南基鶴, 2003). 이처럼 왜구의 주체를 일본사 안에서 찾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김보한의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370년대 왜구의 급격한 증가는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규슈에서 독자적인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의 산물로 분석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쇼니 후유스케(少貳冬資)를 살해하는데, 이 같은 료순(了俊)의 돌출된 행동은 당시 재지세력에게 상당한 동요를 유발시켜서 재지의 이탈자들=‘反探題세력’을 양산시키기에 이른다고 보았다. 이것이 《고려사》에 기록된 ‘遘逃輩’라는 왜구집단이었으며, 1370년대 중반의 왜구의 주체세력이었다고 보았다. 결국 왜구는 규슈의 재지세력 중에서 ‘반탐제 세력’의 성향을 갖는 집단의 활동이었으므로 고려의 요청대로 금구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金普漢, 2001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또 그는 13세기 ‘해상 무사단’의 활동에 주목하여 조큐(承久)의 난과 몽골의 침입으로 일본 국내의 통제가 느슨해 진 상황에서 해상 무사단이 ‘약탈의 새로운 場’을 여는 기회를 잡았다고 분석하였다. 또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혼미한 상황에서 교역과 약탈의 이중성이 일본사에서 왜구 등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일본 열도 내에서 해상 활동의 주인공인 왜구(=해상 무사단)는 중세 동아시아 해역에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약탈과 교역의 이중적 토대를 창출하는데 일조하였다고 보았다(金普漢, 2004). 아울러 왜구=‘동아시아 해역의 아웃로(Outlaw)’라고 처음 명명하고, 14세 말의 왜구는 일본 규슈의 정

항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탐제 세력’·‘재지이탈 세력’과 ‘해상 무사단’의 약탈 행위였다고 보았다. 이들이 바로 약탈과 살생을 자행하며 14세기의 동아시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던 ‘동아시아 해역의 아웃로(Outlaw)’였다고 주장하였다(金普漢, 2006).

또 그는 왜구의 소멸과 관련하여 왜구의 근거지였던 마쓰우라 지역에서 고려를 대상으로 해적활동을 펼치던 왜구의 정착으로 ‘우라우치(浦內)’에서 어업권의 분쟁이 가속화 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1392년 이후에 각 포구에서 ‘押書狀’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다를 분할하여 포구에서 공동 조업을 공식화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어장 분할은 일년교대 또는 일일교대이었는데, 상호 대립을 완화시키면서 어장을 효율적으로 공동이용하는 방법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같은 선택의 이유는 고려에서 활동하던 다수의 왜구 세력이 ‘우라우치’에 정착하면서 어로작업에서 균등한 조업 분배가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金普漢, 2001 <海洋文化와 倭寇의 소멸>).

이상에서 왜구의 주체와 활동 문제가 일본사 안에서 최고의 화두로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연구의 최대성과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왜구 근거지와 왜구의 발생 원인, 그리고 소멸 원인, 왜구 주체의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재정리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를 다음 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Ⅲ. 연구 성과의 주제별 분석

본 장에서는 기존의 왜구 연구사를 왜구의 근거지, 왜구의 발생과 창궐의 원인, 소멸의 원인, 왜구의 주체 등을 주제별로 다루어 볼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연구에서 인용한 사료는 한국 측의 사료로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동사강목》 《조선왕조실록》 《노송당일본행록》 《해동제국기》와 일본 측의 사료로 《明月記》 《吾妻鏡》 《青方文書》 《百鍊抄》 《鎌倉遺文》 《南北朝遺文》 《善隣國寶記》 《太平記》 《花營三代記》 《歷代鎮西志》 《禰寢文書》 《中世法制史料集》 등 다수이다. 한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한일의 사료를 폭넓게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 왜구 근거지의 문제

일본 사료에 의하면 규슈의 마쓰우라 지방은 본래 가마쿠라 초기부터 왜구의 근거지로 알려진 지역이다. 실제로 《명월기》 《오처경》 《청방문서》 등의 13세기 사료에는 마쓰우라도(松浦黨)가 일찍부터 고려에서 왜구로 활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4세기 이후의 왜구 근거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한국의 사료에서 다양한 지역을 소개하고 있다.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해동제국기》 등에 대마도, 이키도, 고도(五島), 히라도(平戶), 마쓰우라(松浦)지방, 북규슈, 시코쿠(四國), 세토(瀬戶)내해 연안, 내외대도(内外大島) 등 다양한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대체로 지금까지의 한국의 모든 연구 성과를 살펴본 결과 학자에 따라 다소 견해 차이는 있어도 위에서 열거한 지역들이 왜구의 근거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왜구 발생과 창궐, 그리고 소멸의 원인

현재 고려 말 왜구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한일 학자들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일부 일본학자들은 왜구가 발생하는 원인과 왜구의 창궐을 고려 내 정황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왜구 발생의 원인으로 무장 상인단, 고려의 무역 제한, 여몽연합군 침입에 대한 복수 등이다. 또 왜구 창궐의 원인에 대해서도 고려 토지제도의 문란과 이에 따른 고려 軍制의 이완에서 찾고 있다.¹²⁾ 즉 고려 후기 조정의 失政과 정치상황의 악화가 왜구의 창궐 원인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왜구의 발생과 창궐, 그리고 소멸의 전 과정이 고려 내의 정치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경향이다.

그러나 국내의 학자들은 왜구의 발생 원인을 일본 내의 정치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사의 시각에서 왜구의 발생 원인으로 남북조 내란기 악당 세력의 활동과 병량미의 확보로 보는 견해(李領, 2000)와 규슈 마쓰우라 지역 소무사들의 자의적인 해적 활동으로 보는 주장(金普漢, 1999)이 그것이다. 그리고 1370년대

12) 田村洋幸, 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三和書房); 田中建夫, 1982 《倭寇-海の歴史-》(教育社歴史新書)

왜구 창궐의 원인이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독자적인 권력 강화과정에서 이탈한 ‘反探題 세력’의 집단행동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金普漢, 2001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이 같은 견해는 왜구의 발생 원인이 급변하는 규슈의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된 견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 왜구의 소멸 원인과 관련해서 1990년대 이전의 한국의 연구에서는 고려의 군사·외교적 성과와 조선 초의 공무역의 전개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마쓰우라 지역 재지세력의 잇키(一揆) 결성과 유동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고려에 왜구 출몰을 규제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金普漢, 1999). 더 나아가 왜구의 정착에 따른 포구 내의 고밀도화를 공동어업권의 분화를 통해서 극복해 나갔다는 견해를 제기하면서 왜구 소멸 원인을 일본사 안에서 해석하는데 주력하였다(金普漢, 2001 <海洋文化와 倭寇의 소멸>).

앞으로도 왜구 소멸의 원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려보다는 일본열도를 집중 연구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즉 고려의 군사적인 대응으로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약탈물 대신에 보상 재화가 일본 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그 대체물로서 자신의 근거지에서 안정적인 생업과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보완되었을 때, 일본열도에서의 왜구 주체와 1380년대와 1390년대 왜구 소멸이 일목요연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왜구 주체의 문제

14세기 중반 이후는 동아시아 해상에서 해적의 활동, 즉 왜구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일본의 왜구 연구에서는 왜구의 주체를 왜구=고려·조선인 주체로 보고, 고려의 尠尺·才人=왜구, 혹은 제주도인=왜구로 보는 견해가 있다.¹³⁾ 더 나아가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왜구의 대장이었던 阿只拔都가 제주도 출신일지도 모르며, 제주도민이 왜구로 활약하였다는 논리가 새롭게 등장한다.¹⁴⁾ 이같은 논리는 왜구의 발생 원인이 고려 내부의 사정에 기인한 것처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

13)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日本の社會史》(岩波書店); 田村洋幸, 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三和書房)

14)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高橋公明, 1987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濟州道を中心として—> 《史學》 33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게 ‘왜구 주체론’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왜구의 근거지와 발생 원인이 일본 내의 혼란한 정치상황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면서 왜구의 근거지를 은닉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반면에 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경인년 왜구의 주체가 일본 내의 악당세력으로 보는 주장(李頴, 1996)과 규슈·시코쿠 등의 서국지방의 ‘완민’·‘적도’와 ‘악당’·‘해적’으로 보는 견해(南基鶴, 2003), 그리고 ‘反探題 세력’·‘재지이탈 세력’과 ‘해상 무사단’의 약탈 행위로 보는 주장이 나란히 공존한다(金普漢, 2006). 이와 같이 한국 측에서도 일본사의 시각에서 왜구의 주체를 일본인 또는 일본으로 보려는 견해들이 거의 대다수를 점한다.

IV. 왜구 연구의 문제와 전망

일부 일본 측의 연구사에서 왜구의 근거지, 왜구의 발생 원인과 창궐 원인, 그리고 왜구의 주체가 왜구 피해 지역인 고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는 일본 국내의 정치변화와 재지세력의 유동성이라는 필수적 요소가 무시되고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면, 왜구의 근거지, 왜구 발생과 창궐의 원인, 왜구의 소멸 등이 일본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사 검토과정에서 왜구의 문제는 13~14세기 일본 내의 왜구근거지에서 왜구 발생의 원인→창궐의 원인→감소의 원인이라는 순환 고리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인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왜구의 문제를 일본의 정치상황에 맞추어서 일본사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